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2, 277-29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고 향 자† 강 혜 원
숙명여자대학교 서라벌대학

본 연구는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대학생들의 보다 나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갈등적 독립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의사결정 혼란, 결단 불안, 외적 갈등 및 역기능적 사고 전체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 5개 4년제 대학 1-4학년에 재학 중인 377명의 남녀학생들이었다. 연구결과 다음의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부 및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대부분 남녀 모두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는데,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이,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이 더 중요했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 독립은 하위요인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음이 밝혀져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심리적 독립 중 갈등적 독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쳐 가장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즉 갈등적 독립정도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적게 함으로, 부 및 모와의 갈등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 및 모 모두와 유의하게 높은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있었고, 더불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섯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같이 사는 경우보다, 갈등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고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외적갈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런 프로그램에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등 가족과정 변인이 포함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심리적 독립, 심리적 분리,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사고검사

고향자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에 근무하고, 강혜원은 서라벌대학 유아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고 향 자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전화 : 011-449-7660 E-mail : hyangkoh@hanmail.net

진로선택은 인간의 전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이며,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종적인 직업선택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직업, 대인관계 및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인문계 및 실업계) 졸업생 대비 대학진학률이 74.2%에 이르는 등(한국교육개발원, 2002) 많은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합격위주의 대학진학을 하였고, 대학 입학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에 대하여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결과,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에 불안을 느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여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대학입학 후에도 전공선택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진로결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대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경향 중 하나는 인지적 접근이다. 이는 최근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에서의 인지적 접근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지 재구조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Mitchell & Krumboltz, 1987).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인지, 즉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들 역기능적 인지가 내담자의 의사결정 회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 진로준비활동 방해 등을 야기함이 밝혀졌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Corbishley & Yost, 1989; Dowd, 1995; Lewis & Gilhousen, 1981).

이런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Sampson, Peterson, Lentz, Reardon 및 Saunders(1996)는 진로와 관련된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하는 이러한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시켰고, 또한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도 도입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 정확한 문제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고, 또 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을 만든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겨야 하고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사고검사를 활용한 역기능적 진로사고 관련 연구들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정서적 변인이 아니라 인지적 변인임을 밝혔고(Dodge, 2001; Osborn, 1999), 특히 Dodge(2001)는 대학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정한 학생들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과 진로선택 실행을 저해한다고 추론했다(이재창 등, 2002에서 재인용). Saunders, Peterson, Sampson 과 Reardon(2000)의 연구에서도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의 주요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2001)[1]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진로사고검사를 번안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재창 등, 2002)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 확신성과는 부적으로 미결정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고, 특히 의사결정 혼란 하위변인이 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처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구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후기 청소년기는 이제까지 의존해왔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심리적 독립은 주로 유아기의 부모-자녀 애착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의존관계는 아동기, 청년기를 거쳐 전 생애동안 지속된다는 인식에 따라 청소년 후기의 분리과정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변인들은 대학 및 사회생활 적응, 대인관계, 진로발달,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은진, 2001; 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이영선, 1999; 이희영, 1999; 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Lopez, Watkins, Jr., Manus, & Hunton-Shoup, 1992; Lucas, 1997; Santos & Coimbra, 2000).

Hoffman(1984)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과정을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갈등적 독립의 4개 하위척도로 나누어 측정하는 심리적 분리 검사(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였다. 심리적 분리검사를 사용한 연구들은(김정애, 1998; 정은희 1993; Hoffman, 1984; Lapsley 등, 1989; Lopez, Cambell, & Watkins, 1988) 부모로부터 갈등면에서 독립한 정도가 적응과 큰 상관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과 불안감, 죄책감 등의 갈등이 없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은 적응과 관련은 있지만, 변인에 따라 그 양상이 서로 다른 측면을 보였다. 즉 모든 측면에서 독립한 정도가 높아야만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부 및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양상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는 대학생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인 진로 문제를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보다 나은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진로사고검사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5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 ~4학년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21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완전한 질문지와 부나 모 중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는 경우, 친부모가 아닌 경우, 재혼 이혼 혹은 별거중인 경우의 가정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총 377부의 질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남학생 143명, 여학생 234명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0명, 2학년 214명, 3학년 62명, 4학년 41명이었다. 또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94명,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83명이었다.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분리척도,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인적 사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분리척도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분리척도는 Hoffman(1984)이 제작한 것으로 부 및 모로부터의 독립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래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측정하는 69개 문항,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측정하는 69개 문항 총 1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적절한 문항을 일부 제외하여 부 및 모와의 독립 각각 56문항씩 총 1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정은희, 1993 참조). 이 척도는 부, 모 각각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적 독립 13문항, 태도적 독립 13문항, 정서적 독립 10문항, 갈등적 독립 20문항이다. 이 중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실제생활에서 겪는 개인적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루고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현재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부모와 다른 가치, 태도 및 신념을 유지하는 정도를,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승인, 친밀, 동질성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그리고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의식, 불만, 불신, 책임감, 금지, 원망, 원한 및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통계분석 시 점수를 역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 및 모로부터 독립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에서 .80 ~ .90으로 나타났다.

진로사고검사 (Career Thought Inventory: CTI)

진로사고검사는 Sampso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한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ampson 등, 1996). 이 검사는 총 3개의 하위척도와 전체점수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혼란 14문항, 결단불안 10문항, 외적 갈등 5문항 그리고 역기능적 사고 전체 48문항이다. 이들 중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하위척도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서적 문제로 인해 진로결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말하며, 결단불안(Commitment Anxiety)[2] 하위척도는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 때문에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하위척도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반영한다.

이 검사는 CTI검사 개발자와 출판사와의 동의하에 박미진 등(2001)에 의해 우리나라 말로 번안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박미진 등(2001)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번안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 하위척도에서 .64 ~ .89, 전체척도에서 .95로 나타났다.

인적 사항

인적 사항과 관련된 문항은 성,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였다.

검사실시 및 분석방법

검사지는 해당 대학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집단으로 지시사항을 설명하고 실시하였으며, 2002년 11월 18일 ~ 12월 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과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신뢰도(Cronbach α),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및 변량분석이었으며, 결과는 SPSSWIN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결 과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의 상호상관

우선 본 연구의 변인들은 성별, 학년별 그리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모든 변인들에 대해 성, 학년 및 거주여부별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추가분석 부분의 표 4 ~ 표 7 참조). 그 결과 성별로는 부-태도적 독립(p>n.s.), 의사결정 혼란(p=.063)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동거여부별로는 모-갈등적 독립(p=.000), 부-갈등적 독립(p=.006) 및 외적갈등(p=.046)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상관계수를 성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의 상호상관을 남녀별로 분리하여 산출한 결과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독립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와의 심리적 독립은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 그리고 정서적 독립간에는 서로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이들과 갈등적 독립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모와의 심리적 독립 역시 이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따라서 갈등적 독립은 다른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의 심리적 독립과 모의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능적, 태도

2) 박미진 등(2001)의 연구에서 결단불안(Commitment Anxiety)은 수행불안으로 번역되어 있다

표 1. 남학생: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상호상관계수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기능적 독립	1.00											
2. 부-태도적 독립	.55***	1.00										
3. 부-정서적 독립	.69***	.62***	1.00									
4. 부-갈등적 독립	.02	-.12	-.06	1.00								
5. 모-기능적 독립	.58***	.29***	.33***	.18*	1.00							
6. 모-태도적 독립	.33***	.58***	.35***	.14	.44***	1.00						
7. 모-정서적 독립	.39***	.27***	.53***	.14	.57***	.49***	1.00					
8. 모-갈등적 독립	.05	.05	.05	.52***	.14	.04	.02	1.00				
9. 의사결정 혼란	-.26**	-.16	-.17*	-.28***	-.22**	-.10	.03	-.24**	1.00			
10. 결단 불안	-.20	-.09	-.08	-.37***	-.25**	-.14	-.06	-.23**	.78***	1.00		
11. 외적 갈등	-.15	-.10	-.18*	-.39***	-.17*	-.14	-.10	-.31***	.67***	.69***	1.00	
12. 역기능적 사고 전체	-.24**	-.15	-.14	-.37***	-.23**	-.15	.00	-.28***	.94***	.90***	.79***	1.00

*p<.05 **p<.01 ***p<.001 (N=143)

표 2. 여학생 :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상호상관계수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기능적 독립	1.00											
2. 부-태도적 독립	.63***	1.00										
3. 부-정서적 독립	.84***	.66***	1.00									
4. 부-갈등적 독립	-.17**	-.16*	-.29***	1.00								
5. 모-기능적 독립	.58***	.40***	.48***	-.08	1.00							
6. 모-태도적 독립	.33***	.53***	.33***	-.13*	.60***	1.00						
7. 모-정서적 독립	.48***	.36***	.56***	-.16*	.78***	.54***	1.00					
8. 모-갈등적 독립	-.14*	-.10	-.23***	.57***	-.10	-.14*	-.27***	1.00				
9. 의사결정 혼란	.00	-.00	.03	-.24	-.06	-.05	.03	-.25***	1.00			
10. 결단 불안	-.07	-.07	-.07	-.14*	-.12	-.05				1.00		
11. 외적 갈등	-.03	-.08	-.01	-.26***	-.07	.01	.04	-.33***	.58***	.49***	1.00	
12. 역기능적 사고 전체	-.03	-.04	-.01	-.25***	-.10	.0 2	-.00	-.28***	.93***	.86***	.69***	1.00

*p<.05 **p<.01 ***p<.001 (N=234)

적, 정서적 독립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부의 갈등적 독립과 모의 갈등적 독립간에도 높은 상관이 있었으나, 다른 독립들과 갈등적 독립간에는 부의 갈등적 독립과 모의 기능적 독립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 모 모두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간에는 서로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고, 이들과 갈등적 독립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모-기능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간은 r=-.10의 부적 상관은 있으나 유의도는 없음). 그리고 부와 모의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역시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간에, 그리고 부와 모의 갈등적 독립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다른 독립들과 갈등적 독립간에는 부의 갈등적 독립과 모의 기능적 독립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역기능적 사고의 하위변인 및 전체점수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사고를 중심으로 상호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와 모 모두의 갈등적 독립은 역기능적 사고와 모두 유의미하고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 기능적 독립의 경우는 부-기능적 독립과 외적 갈등 하위변인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의 경우는 의사결정 혼란과 외적 갈등 하위변인에서 부와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태도적 독립의 경우는 부, 모 모두 상관이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역시 부와 모의 갈등적 독립은 역기능적 사고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은 역기능적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해 가지는 연합효과와 그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별로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은 stepwise 방식이었다(표 3 참조).

먼저 의사결정혼란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갈등적 독립, 부-기능적 독립과 모-정서적독립의 총 3개의 독립변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우선 이들은 함께 작용하여 의사결정 혼란의 약 18%를 설명했는데, 이들 중 모-정서적 독립은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정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면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혼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모-갈등적 독립의 1개 변인만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약 6%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β계수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혼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단불안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부-갈등적 독립과 부-기능적 독립이 유의했는데,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1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적이었다. 즉 남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단불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은 모-갈등적 독립과 모-기능적 독립이 유의미했는데, 약 4%의 설명력을

보였고, β계수는 부적이었다. 즉 여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결단불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외적 갈등 변인의 경우 남학생들은 부-갈등적 독립과 부-정서적 독립이 함께 작용하여 20%의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β계수는 부적이었다. 즉 남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적 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은 모-갈등적 독립변인만이 유의했는데, 설명력은 11%이고, β계수는 부적이었다. 즉 여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외적 갈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의 경우 남학생들은 부-갈등적 독립, 부-기능적 독립, 모-정서적 독립 변인이 유의미했는데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22%의 설명력을 보였다. β계수의 경우는 부-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은 부적으로, 모-정서적 독립은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높을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모-갈등적 독립과 모-기능적 독립이 함께 9%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β계수는 부적이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전체적으로 역기능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이 분석을 위해 관련 변인들

표 3. 남녀별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구 분	설명변인	r	R^2	$R^2 ch.$
의사결정 혼란	남	부-갈등적 독립	.28	.08	.08
		부-기능적 독립	.38	.14	.06
		모-정서적 독립	.42	.18	.03
	여	모-갈등적 독립	.25	.06	.06
결단불안	남	부-갈등적 독립	.37	.14	.14
		부-기능적 독립	.42	.17	.04
	여	모-갈등적 독립	.14	.02	.02
		모-기능적 독립	.20	.04	.02
외적 갈등	남	부-갈등적 독립	.39	.16	.16
		부-정서적 독립	.44	.20	.04
	여	모-갈등적 독립	.33	.11	.11
역기능적 사고 전체	남	부-갈등적 독립	.37	.14	.14
		부-기능적 독립	.44	.19	.06
		모-정서적 독립	.47	.22	.03
	여	모-갈등적 독립	.28	.08	.08
		모-기능적 독립	.31	.09	.02

* p < .05, ** p < .01, *** p < .001 (남: N = 143

표 4.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남 M (SD)	여 M (SD)	전체 M (SD)	남 M (SD)
기능적 독립	동거	47.99 (8.50)	45.76 (9.17)	46.59 (8.97)	45.81 (6.96)
	비동거	47.20 (7.81)	44.83 (10.64)	45.75 (9.68)	47.20 (6.88)
	전체	47.59 (8.14)	45.32 (9.89)	46.18 (9.32)	46.50 (6.93)
태도적 독립	동거	42.72 (7.93)	42.57 (7.51)	42.63 (7.65)	41.25 (6.69)
	비동거	42.23 (8.55)	42.45 (9.31)	42.36 (9.00)	41.92 (6.47)
	전체	42.48 (8.22)	42.51 (8.40)	42.50 (8.32)	41.58 (6.57)
정서적 독립	동거	33.28 (6.63)	31.29 (7.29)	32.03 (7.10)	30.71 (5.15)
	비동거	32.39 (6.35)	29.33 (8.45)	30.52 (7.80)	31.49 (4.53)
	전체	32.84 (6.44)	30.35 (7.91)	31.29 (7.48)	31.10 (4.85)
갈등적 독립	동거	66.81 (13.15)	63.20 (11.89)	64.54 (12.50)	68.50 (11.89)
	비동거	69.73 (11.61)	67.46 (12.45)	68.34 (12.15)	71.94 (11.49)
	전체	68.26 (12.50)	65.24 (12.32)	66.38 (12.46)	70.21 (11.78)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성별, 학년별 및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우선 각 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이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방법은 성*동거여부의 이원 변량분석이었다.

표 5에서 보면 부-태도적 독립을 제외한 부 및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하위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모두 부와 모 모두에 대해 남학생의 독립정도가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갈등적 독립과 모-갈등적 독립의 경우는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보다는 떨어져 사는 경우에 갈등적 독립의 정도가 높았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점수들이 성별 및 동거여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결단불안, 외적 갈등 및 역기능적 사고 전체 변인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외적갈등의 경우는 동거여부에 따른 유의도도 있었다. 이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높아 여학생들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적 갈등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외적갈등의 어려움이 더 많았다.

표 5. 부 및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대한 성별 동거여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구 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MS	*F*	*MS*	*F*	*MS*
부	주효과					
	성 별 (1)	467.29	5.43*	0.12	0.00	566.58
	동거여부 (2)	65.66	0.76	8.64	0.12	178.84
	상호작용효과					
	(1) × (2)	0.45	0.01	3.03	0.04	25.54
	오 차	86.10	-	69.74	-	54.18
모	주효과					
	성 별 (1)	6747.53	97.19***	1147.62	22.40***	3305.45
	동거여부 (2)	133.99	1.93	31.62	0.62	0.05
	상호작용효과					
	(1) × (2)	2.34	0.03	0.42	0.01	69.97
	오 차	69.42	-	51.23	-	34.01

*p<.05 **p<.01 ***p<.001

표 6.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성별/ 동거여부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남	여	전체	구 분		남
		M (*SD*)	*M* (*SD*)	*M* (*SD*)			*M* (*SD*)
의사결정 혼란	동거	28.36 (6.70)	29.52 (7.07)	29.09 (6.94)	결단불안	동거	26.04 (5.20)
	비동거	27.39 (7.45)	29.02 (6.86)	28.39 (7.12)		비동거	25.23 (5.51)
	전체	27.88 (7.07)	29.28 (6.96)	28.75 (7.03)		전체	25.64 (5.35)
외적 갈등	동거	11.51 (2.51)	12.09 (2.34)	11.88 (2.41)	역기능적사고 전체	동거	109.43 (20.08)
	비동거	10.93 (2.68)	11.62 (2.50)	11.35 (2.58)		비동거	105.65 (23.52)
	전체	11.22 (2.60)	11.86 (2.42)	11.62 (2.51)		전체	107.55 (21.86)

표 7.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성별·동거여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구 분		의사결정 혼란		결단불안		외적갈등
		MS	*F*	*MS*	*F*	*MS*
부	주효과					
	성 별 (1)	171.22	3.48	136.69	5.42*	35.36
	동거여부 (2)	47.61	0.97	16.77	0.67	24.84
	상호작용효과					
	(1) × (2)	4.86	0.01	12.91	0.51	0.27
	오 차	49.22	-	25.23	-	6.18

*p<.05 **p<.01

논 의

본 연구는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및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서로 상관이 있었다. 이를 표 3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의 경우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의 22%를 설명하고 있었고, 의사결정혼란 하위변인은 18%, 결단불안은 17%, 외적 갈등은 20%를 설명했다. 여학생의 경우는 4%에서 11%로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역시 부 및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진로 관련 연구들에서 가족간의 과정변인 특히 부나 모와의 심리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을 뿐(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이희영, 1999; Blustein 등, 1991; Santos & Coimbra, 2000),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전자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과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

진로결정의 인지적 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정도 및 양상의 변화를 통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 시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란 부모와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은희, 1993). 이러한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문제에 당면하여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고에 기초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진로문제로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단순히 진로사고라는 인지적 변인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과업의 측면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의 확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내담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남자 대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에서는 이 점이 좀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은 상관이 없고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같은 성으로부터의 독립이 대학생 진로사고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의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경우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연구들(김은진, 2001; 김정애, 1998; Hoffman & Weiss, 1987; Lopez 등, 1988)과는 다른 결과이며 남녀 대학생 모두 동성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박찬주(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성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중요성은 주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외디푸스(일렉트라)적 갈등의 해소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설명되어져 왔고, 연구결과들에서도 비교적 인정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한 점이지만,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독립이 아닌 인지적 정보처리과정 측면에서의 독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대학생이 되기까지 진로에 관련된 사고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강한 동일시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능력이 저해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론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가 요청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정적인 경우와 부적인 경우가 모두 나타나 심리적 독립은 하위변인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4가지 심리적 독립 하위변인 중 동성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부적인 회귀계수를 나타낸 반면, 남학생의 경우 모와의 정서적 독립은 정적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즉 동성 부모로부터 갈등적, 기능적으로 독립하는 정도가 높으면 역기능적 사고를 덜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독립정도가 높을 경우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태도적 독립은 역기능적 사고와 관련이 없는 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관련 사고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 및 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잘 되지 못할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한다는 결과는 갈등적 독립이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이다(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이영선, 1999; Lopez 등, 1988).

이런 결과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 불만, 불신, 책임감, 금지, 원망, 원한 및 분노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덜 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동과정에서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고향자, 강혜원, 2000).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이 매우 높아, 자녀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장래 진로결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하고, 때로는 대신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이런 과정에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의 소유자로 지각하기보다 자신의 분신, 혹은 자신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지각하기도 한다. 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자립보다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주요 과업이 되는 청소년기에 처해 부모의 기대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런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녀는 과도한 죄의식과 불안을 느끼면서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더불어 합리적인 진로사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데 대하여 과도한 죄책감이나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능적 독립이 일부 하위변인들에서 역기능적 사고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진로성숙과의 관련을 탐구했던 이희영(1999)의 연구와 같은 방향의 결과이다.

기능적 독립은 실제생활에서 겪는 개인적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루고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므로, 이 독립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해결과 실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역기능적 사고를 적게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론이므로 더 이상의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독립이 의사결정혼란과 역기능적 사고 전체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점, 즉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고,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의사결정 혼란을 덜 느끼고 역기능적 사고를 덜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탐구가 필요하다.

정은희(1993)는 Frank(1990), Thornberg(1982)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최적의 자율성 획득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거리감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면서도 불안정을 유발하지는 않도록 적정한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 내적 작용에 있어서 부모와의 계속되는 친밀도와 주관적 자율성의 획득과의 균형을 얻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후기 청소년들이 깊은 개별

주의적 자율감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친밀하려고 하는 욕구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p. 26-27). 즉 자율이나 독립은 정서적으로 거리감과 친밀도의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분리와 애착을 함께 다룬 연구들의 경우(김은진, 2001; Lopez & Gover, 1993; Moore, 1987), 가족으로부터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과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의 지각이 진로발달을 포함한 사회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애(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적일수록 진로계획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 과정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분리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윤인숙(2000)의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은 효 의식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정서적 독립은 효 의식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 정서적 독립이 높은 것은 효 의식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정서적 독립이 덜 이루어질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덜 나타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나 친밀감 등을 별도 변인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이 점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추가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있음이 나타났고, 더불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독립정도를 나타낸 결과는 김은진(2001), 윤인숙(2000), Lapsley 등(1989), Lopez 등(1988)의 연구들과 일치되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된 결과들이다. 독립성 발달에서 성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화 과정에서의 성 유형화로 설명되고 있다. 즉 남녀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독립정도의 차이는 이미 청소년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여자에게는 애정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태도를, 남자에게는 독립성과 자기주장을 강화시키는 성 유형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덜 하고 있는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는 연구들과 일치되는 방향이다(고향자, 강혜원, 2000; 김은진, 2001).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인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고향자, 1992)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는 합리적 유형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직접 다룬 이재창 등(2002)의 연구에서 결단불안 하위영역에서 여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남학생보다 높았던 점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게는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결혼 후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문제에 대한 생각 등으로 진로선택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진로사고를 방해하고 선택을 회피하게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덜 이루어지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다는 점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

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심리적 독립 수준 및 사고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실시가 요청된다고 본다.

여섯째, 부 및 모와의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보다는 떨어져 사는 경우 갈등적 독립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변인 중 외적갈등 역시 동거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외적 갈등에서의 역기능적 사고가 더 많았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갈등적 독립이 더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결과는 김은진(2001), 정은희(1993), Lapsley 등(1989)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통한 부모와의 물리적 분리 경험이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자율성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은 설사 부모에 대해 부담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떨어져 있는 동안 그 부담스러운 감정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 갈등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외적 갈등은 진로문제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진로에 관한 부모님(타인) 의견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과정에서 이러한 외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과 관련될 수 있는 가족의 과정요인들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즉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이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로부터 영향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과, 직접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결과논의 시 추론이 많이 포함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앞으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와, 이러한 사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또 더 나아가 진로관련 인지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향자, 강혜원 (2000). 가치지향, 자기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4,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장협의회.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애 (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 성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박찬주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인숙 (2000).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분리 및 애착과 효(孝) 의식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선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39-259.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2002). 간추린 교육통계 : II. 유·초·중등교육.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Dowd, E. T.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60-569.

Lopez, F. G., Watkins, C. E., Jr., Manus, M., & Hunton-Shoup, J. (1992). Conflictual independence, mood regulation, and generalized self-efficacy: Test of a model of late-adolescent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75-381.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7). The effects of cognitive restructuring and decision making training on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171-174.

Moore, D.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Santos, P. J., & Coimbra, J. L. (2000).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46-362.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5
게 재 결 정 일 : 2003. 6. 7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2, 277-29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Hyang-Ja Ko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e-Won Kang
Sorabol College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primary factors which help college students make a better decision for their career by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consists of 4 factors-functional, attitudinal, emotional and conflictual independence. Also,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is composed of decision making confusion, commitment anxiety, external conflict and dysfunctional thinking.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377 college students in 5 four-year-colleges around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shows that first, in general,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is exceedingly related to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mong both males and females: that is, males with their fathers, females with their mothers. Accordingly, psychological independence needs to be considered when counselling them with careers. Secondly, from the fact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may affect either to increase or to decrease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by the lower factors, it is required to give different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each lower factor. Third, it is conflictual independence in 4 factor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that affected the lower part most effectively in every aspect. In other words, it's quite important to make a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s the higher the degree of conflictual independence, the lower the degree of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ourth, males show higher psychological independence with their parents, in contrast, lower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han girls do, Fifth, students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re more likely to have less external conflict of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compared with students who don't live with their parents.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er-counselling program through cognitive approach method, which includes family change factors such as psychological independence.

Key Words : psychological independence, psychological separati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Career Thought Inventory